

# 미-러 양자회담...우크라 전쟁 종식 '동상이몽'

### 젤렌스키 불참 속 15일 알래스카서... '푸틴, 종전에 소극적' 평가 우크라 "돈바스 철수는 안될 말... 휴전 동의 후 영토 문제 논의"

미 알래스카주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의 결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젤렌스키는 불참=미국 백악관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알래스카주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양자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회담 중 두 정상의 일대일 대면도 이뤄질 예정이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차 정상회담을 미래에 개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는 바라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답방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미래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배제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회담에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듣는 연습"(listening exercise)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쟁의 한 당사자(러시아)만이 참석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더 확고하고 나은 이해를 얻는 것"이 회담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우크라 종전은 커녕 푸틴 공작에 놀아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는 목표를 접근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에 봉사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기사에서 분석가들이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 요원이자 '뛰어난 조작자'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급하게 성사된 감이 있는 미러 정상회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종전이지만 푸틴 대통령은 휴전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참여도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미국의

지원에 더 많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호되게 받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종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데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를 사고 있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앤드루 와이즈 연구원은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백악관에서 충돌한 이후 유럽인과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행정부 내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트럼프가 러시아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맞춰왔다"면서 "집권 2기 첫 대면 접촉에서의 진정한 시험은 그런 정책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도 휴전조건 수용 불가=미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러시아가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체에서 철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AP·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가 다른 공세를 준비할 교두보를 열어줄 것"이라며 영토 양보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먼저 휴전에 동의하고 난 다음에 영토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영토 문제 논의에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수적인



201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푸틴(왼쪽)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시사했다.

영미권 주요 언론은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양보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의 큰 부분을 점령했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를 그보다

작은 비율로 장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대가로 다른 지역에서 진격을 멈추는 게 러시아의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영토 양보를 요구하는 러시아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 및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와 전화 통화, 그리고 고위 안보 당국자들 회의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푸틴이 우리가 돈바스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미국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들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확대...89명 사망

### 팔레스타인 주민 식량배급 중 참변

가자지구의 '완전 점령' 정책을 천명한 이스라엘이 공습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89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가디언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정책을 승인한 뒤로 최근 사흘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거세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격렬한 공습으로 11~12일 사이 최소 8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최소 15명의 주민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 칸유니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주택에 있던 부부와 어린이 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마와시 난민촌에도 공습으로 4명이 숨졌다고 현지 구호 당국이 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국 마무드 바살 대변인은 자이툰과 사브라 등 주민 밀집 거주지역에도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주택과 고층 건물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현지 다수 주민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것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의 폐허가 된 건물들. /연합뉴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으로 총 6만1천59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5만408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통제로 가자지구에 구호물

자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수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자 사망자는 22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3명은 어린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 푸틴, 김정은과 통화...미러 정상회담 정보 공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다. 이 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 확정됐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와 면담한 내용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독일국가연합(CIS) 국가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최근 '혈맹'으로 발전

한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다. /연합뉴스

# "北해커 컴퓨터 해킹했더니 韓 정부·기업 침투 증거 발견"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런처에 따르면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org)라는 이름을 각각 쓰는 두 해커는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며 그 내용을 사이버보안 전자잡지 '프랙'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테크런처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Kimsuky)의 내부 활동을 들여다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그동안 보안 연구자나 기업들이 주로 데이터 유출 사건을 분석했지만, 두 해커가 직접 조직 구성원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